

6·25전쟁시 미국 지상군의 한반도 전개방침과 특징

南 廷 屋*

1. 머 리 말
2. 미 지상군의 파한(派韓) 결정과 전개 방침
3. 미 지상군의 한반도 전개상의 주요 특징
4. 맺 음 말

1. 머 리 말

6·25전쟁 시 미 지상군의 한반도 전개는 극적으로 이뤄졌다. 미국은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국군의 절반이 조기에 상실되는 등 전황이 극도로 불리하게 전개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주일미군(駐日美軍)을 필두로 미 본토 및 해외파견 병력을 차출하여 한국에 신속히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元帥)는 전승에 필요한 부대와 병력을 요청했고, 미 합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방비 삭감에 따른 부족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국 지원과 제3차 세계대전의 방지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한국에 미군을 파병했다.

전쟁 초기 한반도에 전개된 미 지상군은 지연작전(遲延作戰)을 거쳐 최후의 방어선인 부산교두보를 견지했고, 이어 인천상륙작전으로 공세 이전의 여건을 조성한 뒤 총반격작전으로 전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하지만 중공군 개입 이후 전선이 교착되자 미 지상군은 그동안의 전투 피로도와 장기간 전선에 투입된 부대 및 개인의 정비를 위해 순환근무(Rotation)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미군 당국은 전선 교대부대로 주방위군(州防衛軍·National Guard) 사단을 한국전선에 투입시켜, 최초 전개된 주일미군 사단과 교대시켰다. 그 결과 휴전 때까지 미 지상군은 1개 야전군, 3개 군단, 9개 전투사단(제1해병사단 포함), 3개 연대전투단, 28개 연대, 80개 보병대대, 54개 포병대대, 8개 기갑대대를 한국에 전개했다.

그럼에도 6·25전쟁기 미군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¹⁾ 다만 미군의 한반도 전개에 관한 내용은 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의 사단급 이상 부대사 및 공간사, 그리고 6·25전쟁을 다루고 있는 저서에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²⁾ 그런 탓인지 미군의 한반도 전개상에

- 1) 남정옥, 『韓美軍史關係史 1871-200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서울新聞社, 『駐韓美軍 30年 1945-1978』(서울: 三寶印刷社, 1979); 남정옥, 『6·25전쟁 시 주일미군의 참전결과와 한반도 전개』, 『軍史』 제54호(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4), pp. 105-158.
- 2) 이에 대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Roy K. Flint, *T. F. Smith and the 24th Division: Delay and Withdrawal, 5-19 July 1950*,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8); HQ 1ST CAVALRY DIVISION, *1st CAVALRY DIVISION: KOREA JUNE 1950 to JANUARY 1952*; Richard T. Pullen, Robert E. Christensen, and James C. Totten, *25th Infantry Division: Trophic Lighting in Korea*, Atlanta: Albert Love Enterprises); James P. Finley,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In the Vanguard of ROK-US Relations*, San Francisco: Command Historian's Office, Secretary Joint Staff, Hqs, USFK/EUSA, 1983); Gene Gurney, *A Pictorial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1977*;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나타난 문제점과 이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특징적인 요소를 도출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6·25전쟁 시 미 지상군의 파병결정과 이의 전개상에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참전 결정에 따른 미 지상군의 한반도 전개상의 주요 특징으로 나타난 맥아더의 요청에 따른 증원 병력의 파한(派韓),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축차 투입, 현지 적응훈련 없이 즉각적으로 전선에 투입된 문제, 맥아더의 '모루(anvil)와 망치(hammer) 작전'에 의해 실시된 부대 전개상의 문제, 전쟁 초기 나타난 부적당한 지휘관과 부적절한 부대의 전개에 관한 사실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Korea (Washington, D.C.: GPO, 196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Washington, D.C.: GPO, 1983); Pat Meid, USMCR, and James M. Yingling, USMC, *U. S. Marine Operations in Korea: volume 5, Operations in West Korea, 1972* (Washington, D.C.: GPO);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C.: OCMH, 1961); James F. Schnabel, *U. S. Army in the Korean War: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War* (Washington, D.C.: GPO, 1972); John D. Stuckey and Joseph H. Pistorious, *Mobilization of the Army National Guard and Army Reserve: Historical Perspective and the Vietnam War* (Carlisle Barracks,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 S. Army War College, November 15, 1984);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 1950-1953* (New York: Times Book, 1987); James A. Huston, *The Sinews of War: Army Logistics, 1775-1953*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United States Army, 198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1966); Harry S. Summers, *Korean War Almanac* (New York: Facts on Files, 1990).

2. 미 지상군의 파한(派韓) 결정과 전개 방침

(1) 미 지상군의 한국 파병 결정 과정

6·25전쟁 시 미국은 제1·2차 세계대전과 달리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했다. 즉,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단 1주일의 예고도 없이 전쟁에 휩쓸렸고, 미국 국민들도 전혀 알지 못한 지구 반대편의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에 휘말리게 됐다. 일찍이 미국은 독립전쟁(Civil War)을 비롯하여 세계대전에 참전할 때는 미리 전쟁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전쟁에 임했다. 하지만 1950년 6월,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은 미국에게는 전혀 예기치 않은 전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막 가정으로 돌아와 잠시나마 전쟁을 잊고 있던 많은 젊은이들을 다시 전쟁터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³⁾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 대한 전쟁계획이 아예 없었다. 존슨(Louis A. Johnson) 국방장관과 극동해군사령관 조이(Tuner C. Joy) 제독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즉, 존슨 국방장관은 전쟁 당일인 1950년 6월 25일 개최된 국가안보회의에서 “우리[국방부]는 한국중심의 전쟁계획이 없다”⁴⁾고 했는가 하면, 조이 제독은 1951년 맥아더 청문회에서 “남한이 침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전쟁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⁵⁾

3)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 (New York: A Da Capo Paperback, 1967), pp. v-vi.

4)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 128.

5) MacArthur Hearings, Part IV, p. 2574;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 138.

이처럼 미국의 전쟁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워싱턴의 수뇌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⁶⁾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소(對蘇) 전쟁계획이나 유사시 한국을 관할하게 될 극동군사령부의 작전계획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고, 또 태평양전쟁 시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결정타를 준 원자폭탄을 과신했던 미국이 재래식 전쟁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한국에서의 전쟁 소식을 접한 미국 전쟁지도부는 한국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6월 25일 20:00시(미국시각: 이하 생략)에 개최된 미 국가안보회의는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에 조사반(survey team)을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⁷⁾ 이에 맥아더는 사태를 파악하고 지휘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6월 27일 극동군사령부 군수참모부 차장 처치(John H. Church)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했다.⁸⁾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맥아더는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부여받자, 조사반의 기능과 편성을 확대하여 극동군사령부의 '전방지휘소 겸 주한연락단(ADCOM: Advance Command and Liaison Group in Korea)'으로 명명하고,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지휘와 한국군에 대한 지원임무를 추가로 지시한 후 수원(水原)으로 파견했다.⁹⁾ 이때부터 ADCOM은 미 군사고문단을 예하에 두고 한국군 수뇌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 역할을 하게 됐다.

특히 맥아더는 서울이 함락된 다음날인 1950년 6월 29일 한국전선을

6)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 128; Ridgway, *The Korean War*, p. 23.

7)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51-1953* III, Part 1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p. 35.

8) *FRUS*, 1950, vol. VII, Korea, p. 210.

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3.

직접 시찰한 후, “현 전선을 유지하고 실지를 회복하는 길은 미 지상군을 투입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승인하면 1개 연대전투단을 파견한 후 다시 일본에 있는 미군 2개 사단을 투입하겠다”고 함참에 보고했다.¹⁰⁾

맥아더의 보고서가 6월 30일 03:00시경에 펜타곤에 도착하자 콜린스(J. Lawton Collins) 육군참모총장은 이 내용을 페이스(Frank Pace, Jr.) 육군 장관에게 보고했다. 페이스 장관이 이 사실을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에게 04:57분에 보고하자, 트루먼은 1개 연대전투단 투입을 승인하면서 2개 사단 파병문제는 참모들과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¹¹⁾ 09:30분 백악관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국무장관·국방장관·국방차관·합참의장과 맥아더 장군이 요청한 2개 사단 파병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2개 사단만 파병하면 전투는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¹²⁾ 이에 트루먼은 맥아더에게 그의 휘하 병력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자,¹³⁾ 브래들리(Omar N. Bradley) 합참의장이 이 내용을 극동군사령부에 하달했다.¹⁴⁾

이로써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1주일 만에 그리고 맥아더 장군이 미 지상군 파병을 요청한 지 단 하루도 되지 않아 한국에 미 지상군을 파병하게 됐다. 한국에 지상군을 파견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중심에는 전황을 정확히 읽고 용기 있게 이를 적시에 건의한 맥아더 원수,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검토한 후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은 트루먼 대통령과 그의 유능한 보좌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0) Paige, *op. cit.*, pp. 236-237.

11) *Ibid.*, pp. 238-239.

12) *Ibid.*, p. 260.

13) Harry S. Truman, *Memoirs: Year of Trial and Hope*, vol. 2 (Garden City, N. Y.: Doubleday & Co., 1956), p. 343.

14) *MacArthur Hearings*, Appendix K, Part V, p. 3192.

(2) 통합 전투력 발휘가 어려운 미 지상군의 전력 수준

6·25전쟁 당시 미군은 국방 예산 삭감으로 단지 뼈대(skeleton)만 남은 군대로 전략한 상태였다. 미국이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장 5배의 병력과 군수품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됐다.¹⁵⁾ 또한 미군의 전투력 수준도 질적으로 매우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인가병력을 확보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에 관여하기에 당시 미국의 국방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미국의 전력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일거에 패망케 한 원자폭탄의 위력이 크게 작용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원자폭탄은 미국에게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psychological Maginot line)' 역할을 했다. 즉, 원자폭탄은 미국으로 하여금 전시체제를 풀고, 칼을 칼집에 꽂게 하고, 육·해·공군의 장병을 제대시키는 등 미국의 재래식 무장을 약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¹⁶⁾

그 결과 미국의 재래식 전력은 크게 감소했다. 6·25전쟁 당시 미군 병력은 138만 명으로 주적(principal enemy)이었던 소련군 430만 명에 비해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그 중 가장 피해를 본 것이 육군이었다. 육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약 1,200만 명에 육박했던 병력이 593,000명으로 감축됐고, 사단 수도 약 100여 개 사단에서 10개 사단 및 5개 연대전투단으로 대폭 축소됐다. 6·25 당시 해군은 병력 337,000명에 함정 670척과 항공기 4,300대를 보유하고, 공군은 병력 411,000명에 48개 전투비행단을, 그리고 해병대는 74,000명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미국이 세계전략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은 약 170만 명이었다.¹⁷⁾ 미국은 병력 및 장비 면에서 세계

전략을 수행하기에는 모두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때 6·25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한편 한국을 관할하고 있던 극동 및 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도 마찬가지로 지였다. 미 육군은 총병력 59만 명(10개 사단) 중 36만 명이 미 본토(5개 사단)에 있었고, 나머지 23만 명은 해외에 주둔해 있었다. 해외 주둔 미군 중 일본에서 점령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 극동군(4개 사단)은 1949년 1월 1일 120,000명에서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에는 108,500명으로 감축됐다.¹⁸⁾

또한 미 해군은 약 34만 명의 병력에 67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태평양 및 극동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력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즉, 항공모함 벨리포지(Valley Forge)호, 순양함 로체스타호, 구축함 8척으로 편성된 미 제7함대가 홍콩과 필리핀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맥아더의 지휘를 받는 극동해군은 경순양함 주노호와 구축함 4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 공군은 병력 약 41만 명에 48개 전투비행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미 극동공군은 F80전투기 375대, F82 무스탕전투기 30대, B26경폭격기 32대, B29중폭격기 3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¹⁹⁾

더구나 미군의 이러한 전력, 특히 극동군사령부 예하의 미 지상군의 전력 수준은 전투를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즉, 6·25전쟁 초기 전개되었던 주일미군의 3개 보병사단(제1기병·제24·제25사단) 등은 편성면에서 전투에 불합리한 편성이었다. 이들 사단들은 3개 보병연대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이들 사단의 보병연대는 2개 대대, 포병대대는 2개 포대, 대공포대대는 1개 포대, 그리고 3개의 중전차대대는 1개의 경전차중대만으로 편성되어 있어 유사시 정상적인 통합전투력을 발

18) Schnabel, *op. cit.*, p. 43. 그 밖에 독일(1개 사단)에 80,000명, 오스트리아에 9,500명, 트리에스테에 4,800명, 태평양 지역에 7,000명, 알래스카에 7,500명, 카리브지역에 12,200명의 미군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었다.

19) Malco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Annapolis: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1957), p. 34; Paige, *op. cit.*, pp. 135-136.

15) Ridgway, *op. cit.*, pp. 23-24.

16) Ridgway, *op. cit.*, p. 11.

17) Matloff, *American Military History*, pp. 539-540.

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예비대를 전혀 확보할 수 없는 편성상의 결점은 전쟁 수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노출됨으로써 개전 초기 지연전 및 낙동강 전선에 투입됐던 미군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

이렇듯 6·25전쟁 당시 미국은 재래식에 의한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병력과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러한 부대도 완전 편성이 아닌 감소 편성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지닌 채 전투에 돌입하게 됐다.

(3) 미국의 병력 증원 목적과 방침

1950년 6월 25일, 미 본토 전략예비병력은 14만 명에 불과했다.²⁰⁾ 그 가운데 15,000명은 미국 내의 우체국·기지(基地)·역(驛) 등에 근무하는 병사들이었고, 일부는 보충병이나 특기병으로 차출됨으로써 대부분의 부대에는 기간요원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 결과 즉각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미 본토 내 부대로는 제82공정사단, 제3기병사단, 그리고 대공포부대뿐이었다.

그러나 맥아더는 펜타곤에 병력 증원을 계속 요청했다. 전쟁 발발 1개월 후인 1950년 7월 25일까지 맥아더가 요청한 증원 병력은 82,000명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맥아더의 증원 요청은 계속됨으로써 8월 6일 본토 전략예비병력은 40,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²¹⁾

이렇듯 6·25전쟁으로 미 본토의 장교와 사병이 극동군에 긴급 파견됨으로써 미국 방위는 물론이고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서유럽의 안보까지 위협에 처하게 됐다. 이에 미 국방부의 고위관리들은 한국에서의 전쟁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그들은 한국전 수행과 봉

쇄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동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들은 국민들의 사기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투능력을 신속히 회복시킬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²²⁾

특히 미국의 전쟁지도부는 한국에 증원 병력을 보내면서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 그 일환으로 1950년 7월 12일 육군장관실에서 회동한 고위 장성은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위협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다. 즉, 그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육군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동원할 병력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야만 병력 획득, 훈련병 수용능력, 산업동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²³⁾

미국 전쟁지도부는 이러한 기준과 방침에 따라 한국전선 및 미국의 세계전략에 필요한 육군 인가병력에 대한 증원을 확대해 나갔다. 이에 미 육군은 부족한 인가병력을 세계원병·징집병·주방위군·편성예비군에서 충당해 나갔고, 한편으로 한국 전선에 대한 증원으로 손실이 발생한 본토 전략예비병력에 대한 충원도 아울러 실시했다.

즉, 미 합참은 한국전선으로 병력을 파견할 때 미 본토 전략예비인 미 제2보병사단·공수전투단·3개의 중전차대대에서 차출함으로써 생긴 병력 손실을 충원해 주도록 했다. 또한 트루먼 대통령도 이를 위해 전쟁 발발 직후 육군 인가병력을 추가로 5만 명을 더 증원했다. 이에 육군 인가병력이 68만 명으로 증원되자, 합참은 이들 추가로 증원된 5만 명의 병력을 미 본토 전략예비부대와 맥아더 장군의 극동군에 충원해 줬다.²⁴⁾

이후에도 육군 인가병력에 대한 증원 조치는 계속 이뤄졌다. 트루먼 대통령이 육군 인가병력을 740,500명 선으로 승인해 주자, 합참은 새로 증원된 병력 60,500명을 극동군의 전시편제에 맞도록 보충해 주면서 한편으로

20) Schnabel, *op. cit.*, p. 119.

21) *Ibid.*

22) *Ibid.*

23) *Ibid.*, p. 118.

24) Schnabel, *op. cit.*, p. 119.

는 전선부대의 전투손실에 따른 부족 병력을 충원해 줬다. 또한 인가병력 증원은 미 본토 부대 중 최초로 한국에 파병된 제2사단의 전력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끔 했다. 즉, 미 제2사단의 한국 파병으로 발생한 미 본토 전력을 인가병력의 증원에서 충당했다.²⁵⁾

육군 인가병력이 834,000명으로 증원, 미 합참은 추가로 증원된 93,500명을 한국전선을 지도하는 극동군 예하의 전투부대 및 지원부대에 충원해 주고, 나머지 병력은 추가로 편성되는 20여 개의 대공포 대대와 미 본토 전략예비부대에 충원해 줬다.²⁶⁾ 이처럼 미 합참은 미 육군의 인가병력이 증원될 때마다 한국에서 전쟁을 지도하고 있는 미 극동 지상군에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한편 미 본토의 전략예비병력도 보충해 나갔다.

이렇듯 6·25발발 당시 주로 지원병에 의존했던 병력 보충 문제는 육군 인가병력의 증원, 1950년 의무병확대법, 그리고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주방위군·편성예비군에 대한 21개월간 복무연장 권한에 따라 점차 해소됐다.²⁷⁾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서의 전쟁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4) 미 지상군의 전개 방침과 우선순위

전쟁 초기 한국에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병력 판단과 계속되는 병력증원 요청은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의 몫이 됐다. 한국에 미 지상군을 전개시키는데 필요한 기준이나 방침도 맥아더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는 미 지상군 파병이 결정되자 한국에서의 전황을 분석한 후 작

25) *Ibid.*

26) JCS 1800/104: Schnabel, *op. cit.*, p. 120.

27) PL 599, 81st Congress: Terrence J. Gough, *U.S. Army Mobilization and Logistics in the Korean War: A Research Approach* (Washington, D.C.: CMHC, 1987),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역, 『한국전쟁시 미 육군의 동원과 군수에 관한 연구』, 2003, pp. 49-51.

전의 성격에 따른 부대와 병력을 펜타곤에 요청했고,²⁸⁾ 합참은 이를 검토한 후 가급적 맥아더의 건의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미 지상군을 파병했다. 맥아더의 지상군 전개방침 또는 원칙은 우선 북한군의 남진을 어느 선에서 저지한 후 적의 배후에 상륙부대를 상륙시켜 적을 2개 전선으로 분리함과 동시에 적의 퇴로를 차단하여 적을 격멸하는 전략에 기초를 두고 실시했다.

실제로 한국의 전선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자 미국은 우선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실시한 후 미 지상군을 파견하게 됐다. 미국은 개전 초기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국군의 절반이 조기에 상실되는 등 전황이 극도로 불리하게 전개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한국을 지원했다. 이때 한국전구(韓國戰區)를 책임지고 있는 미 극동군사령부는 비록 전투력 면에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한반도와 지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주일미군부터 전개시켰다. 그 후 상륙 및 반격작전을 위해 미 본토 및 해외의 미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지상군을 파견하게 됐다.

이처럼 한국군이 급속히 붕괴되는 긴박한 전황 속에서 이루어진 미 지상군의 한반도 전개는 완전한 전투편성을 갖춘 부대보다는 우선 전투력이 미흡한 부대를 파견해 북한군을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전쟁 초기 한반도에 전개된 미 지상군은 한반도에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한 주일미군부터 전개하여 적의 남진을 저지했다. 이후 미국은 하와이와 오키나와 등 해외 미군기지 및 미 본토 병력을 한국에 전개해 지연전과 부산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어 미 지상군은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공세이전의 여건을 조성한 후, 총반격작전으로 전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해 나갔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피아(彼我)가 서로 완전한 군사적 승리에는 막대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이후 제기된 휴전협상 동안 미국은 그동안의 전투피로도 및 장기간 전선에 투입된 부대 및 개인을 위해 마련한 순환근무제도를 도입했다.²⁹⁾ 이 제도에 따라 미 본토의 주방위군 사

28)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역, *op. cit.*, p. 3.

단이 한국전선에 최초 전개된 주일미군 사단과 교대를 하게 됐다.

이렇듯 6·25전쟁 시 미 지상군의 한반도 전개는 크게 4단계로 이뤄졌다. 1950년 7월, 지연전 동안 주일미군(駐日美軍) 3개 사단과 제8군사령부가 먼저 전개한 데 이어 8월 낙동강 전선 기간 동안에는 미 본토 및 해외 기지(하와이·오키나와)로부터 제5연대전투단·제29연대·제1임시해병여단·제2사단이 전개했다. 이후 인천상륙작전 및 반격작전 동안에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제7사단과 미본토의 제1해병사단·제3사단·제187공수연대전투단이 전개했다. 그리고 1951년 12월~1952년 1월 사이에는 일본 방위를 위해 전개된 주방위군(National Guard) 2개 사단(제40·제45사단)을 최초 투입된 주일미군 2개 사단과 교대하여 한국전선에 마지막으로 투입했다.³⁰⁾ 이렇게 해서 전쟁기간 동안 미군은 1개 야전군, 3개 군단, 8개 전투사단, 3개 연대전투단, 28개 연대, 80개 보병대대, 54개 포병대대, 8개 기갑대대 등을 투입하게 됐다.³¹⁾

3. 미 지상군의 한반도 전개상의 주요 특징

(1) 맥아더의 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사력 판단

맥아더는 한국에서 북한군을 격퇴하는데 필요한 미 지상군의 투입 규모에 대해 자주 피력했다. 그 과정에서 맥아더는 적을 격퇴하는데 필요한 병력 숫자를 계속 늘려갔다. 이는 “북한군이 잘 훈련되고 군기가 엄하며 전투준비가 잘된 부대”라는 것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³²⁾ 비록 맥아더가 전방

29) *Ibid.*, pp. 51-54.

30) 남정옥, 『韓美軍史關係史 1871-2002』, pp. 393-425, 440-443.

31) *Ibid.*, p. 393.

지휘소장 처치(John H. Church) 장군이나 미 제24사단장 딘(William F. Dean) 장군으로부터 전황을 보고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으나, 적의 위협 및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였다.

이처럼 맥아더는 개전 초기 남진하는 북한군의 전체 공격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맥아더는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고 그들을 격퇴시키는데 필요한 병력이 전황 악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개전 초기 맥아더에게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뿐 아니라 전선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맥아더는 1950년 6월 29일, 한강방어선을 시찰하고 난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 현재의 전선을 고수하고 차후에 빼앗긴 땅을 다시 찾을 능력을 갖추기 위해 ... [필요한 지상군으로] 미군 1개 전투단 및 2개 사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에서는 1개 전투단을 승인해 줬다.³³⁾ 이때 맥아더는 적을 저지하고 격퇴하는데 미 지상군 2개 사단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7월 5일, 스미스특수임무부대(Task Force Smith)가 오산전투에서 패배한 후 맥아더의 판단은 바뀌었다. 그는 북한군의 능력에 대해 새롭게 인식했고, 이에 따라 적을 격퇴하는데 필요한 미 지상군의 규모도 변했다. 그는 이러한 판단하에 7월 7일 합참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전차로 증강된 북한군은 공격적이며 그들의 병사들은 잘 훈련됐다. 북한군의 지휘관은 전투지휘능력은 뛰어나며, 그들은 미군보다 월등히 우수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강력한 북한군을 저지하여 격퇴하기 위해서는 완전전성의 4개 사단 내지는 4.5개 사단, 1개 공수연대전투단, 1개 기갑부대가 필요하다. 또 이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미 본토에서 3만 명의 장병이 즉각 파병돼야 한다.

32) Ridgway, *The Korean War*, p. 22.

33) Schnabel, *op. cit.*, p. 57.

이것은 최소한도의 병력이다. 이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지가 의문이다.³⁴⁾

또한 경부축선(京釜軸線)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적의 남진을 일단 저지하고 반격의 기틀로 삼았던 천안(天安)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하자 맥아더는 한국전선에 투입될 미 지상군의 규모를 다시 늘렸다. 즉, 맥아더 장군은 7월 9일, 미 합참에 한국전 수행에 필요한 미 지상군 규모를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한국의 전선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그곳에는 이미 대규모 작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전에 요청한 병력에 추가하여 모든 지원부대를 갖춘 4개 사단 병력이 지체 없이 투입되어야 한다.³⁵⁾

이로써 맥아더가 한국 전선에서 필요로 하는 미 지상군의 규모가 8개 사단 내지는 8.5개 사단으로 늘어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맥아더는 7월 13일 도쿄를 방문한 콜린스(J. Lawton Collins) 육군참모총장에게 한국전선에 1개 야전군사령부 및 8개 보병사단이 필요하다고 했다.³⁶⁾ 이에 따라 펜타곤은 전쟁 동안 맥아더의 이런 판단에 근거하여 한국에 1개 야전군, 육군 8개 사단 및 해병 1개 사단을 파병했다. 이는 맥아더가 북한군 지휘관의 전투지휘능력, 무기 및 장비, 훈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8개 사단 내지 8.5개 사단과 거의 일치했다. 이런 점에서 6·25전쟁은 '맥아더의 전쟁(MacArthur's War)'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군 1개 사단 해상 수송 기간 및 선박 소요 판단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정확히 1주일 뒤인 1950년 7월 1일부터 미 지상군을 일본과 미국에서 한반도로 전개했다.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37일 동안 미군 5개 사단(제2·제24·제25사단, 제1기병사단, 제1해병사단)과 2개 독립보병연대(제5연대전투단·제29연대)가 해상을 통해 한국에 전개됐다. 이후 계속해서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일본과 미국에서 제7사단, 제187공수연대전투단, 5개 독립전차대대가 전개됐다.

그러면 일본 및 미국 본토로부터 미 1개 사단의 해상 수송에 필요한 기간과 소요 선박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이를 6·25전쟁 당시 전쟁전반을 통제하면서 특히 북한군을 지도했던 소련군사고문단장의 보고서를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미군 1개 사단이 해상을 통해 일본에서 한국에 전개되는데 10일이 소요됐다.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개되는 데에는 1~2개월이 소요됐다. 즉, 미국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을 선적할 항구에 집결하는데 12일, 장비 및 병력을 함정에 승선하는데 7일, 해상 수송에 18일, 하선 및 정리에 7일이 소요됨에 따라 총 소요기간은 44일이 걸렸다.³⁷⁾

또한 해상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송하는데 1개 사단에 소요되는 선박(船舶) 수는 보병사단이나 기갑사단이나에 따라 달랐다. 즉, 보병사단은 병력 1인당 10톤을 적용한데 비해 기갑사단은 보병사단보다 5톤이 더 많은 15톤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보병사단은 10,000톤급 선박 20척이, 기갑사단은 25척이 필요했다.³⁸⁾

이처럼 미 지상군은 한국전 수행을 위해 엄청난 선박을 동원하고, 여기에 수많은 병력 및 장비를 싣고 긴 항해를 거쳐 총 44일간의 준비기간을

34) Schnabel, *op. cit.*, pp. 83-84.

35) *Ibid.*, p. 85.

36) *Ibid.*, p. 107.

3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2권, 2001, pp. 258-259.

38) *Ibid.*, p. 259.

통해 한국전선에 투입되어 전투를 치르는 어렵고 힘든 임무를 수행했다. 모든 미군 병사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한국전선에서 전투병으로 싸울 수 있었던 것이다.

(3)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증원 병력 전개 및 연대 단위별 투입

미 지상군이 한반도에 전개할 당시 전선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때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한 데 이어 혼성부대로 편성된 급조된 한국군이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한강방어선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히 투입된 주일미군의 3개 사단(제24·제25사단, 제1기병사단)은 37도선 및 그 이남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 적의 신속한 남진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승리를 목표로 하는 맥아더로서는 보다 많은 증원 병력이 필요했다.

이에 맥아더는 1950년 7월 13일, 도쿄를 방문한 콜린스 육군참모총장과 반덴버그(Hoyt S. Vandenburg) 공군참모총장에게 “승리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얼마나 빨리 증원병을 보내주는지 그 속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8월까지 일본에 있는 잔여병력은 모두 한국에 파견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미 본토로부터 충분한 증원병력이 도착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비관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군의 진격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 “주일미군의 모든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필사적으로 지연작전을 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주일미군이 비록 점령임무를 위해 편성되었다고 해도 가능한 빨리 한국전선에 투입시키겠다”고 했다.³⁹⁾

또한 맥아더는 콜린스 총장에게 한국전선에 신속히 병력을 증강시킬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그는 “세계를 하나의 수도(首都)로 비유하면

서, 만약 수도에 불이 날 경우 화재진화 우선순위가 1번~4번까지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4번째(한국)되는 지역에 불이 났는데도, 우선순위 1번 지역(유럽)에 불이 날 경우에 대비하여 소화(消火)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소화 장비를 우선순위 4번째 지역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⁴⁰⁾

이후 하와이와 미 본토로부터 미 증원 병력이 속속 도착했다. 오드웨이(Godwin L. Ordway) 대령이 지휘하는 하와이 주둔 제5연대전투단이 제일 먼저 한국에 도착했다. 제5연대전투단은 14대의 M27 퍼싱전차와 미 제555 포병대대로 편성된 부대로 1950년 7월 31일 도착했다.⁴¹⁾ 또 힐(John G. Hill) 대령이 지휘하는 제2사단 제9연대가 7월 31일 미 본토로부터 한국에 도착했다. 제15포병대대가 제9연대를 지원했다. 이어 제2사단 제23연대가 8월 5일 부산에 도착했다.⁴²⁾

크레이그(Edward A. Craig) 준장이 지휘하는 제1해병임시여단도 8월 3일 부산에 도착했다. 해병여단은 머레이(Raymond L. Murray) 중령의 제5해병연대와 여단본부로 편성됐다. 하지만 연대 예하 3개 대대는 2개 소총중대와 1개 중박격포 중대로 구성됐다. 맥아더는 해병여단을 상륙부대로 운용하려고 했으나, 전선상황이 악화되자 부산에 상륙시켰다.⁴³⁾

한편 미군 수뇌부는 한반도에 미 지상군을 전개시키면서 전선에 도착하는 즉시 전투발휘가 가능하도록 보병연대에 포병대대·공병중대를 묶어 연대전투단(RCT: Regiment Combat Team)을 편성하여 투입시켰다. 낙동강 방어작전 시까지 미 지상군은 비록 사단 전체가 투입될 경우에도 최초에는 연대전투단을 편성하여 전선지역에 투입했다. 그 결과 이들 연대전투단은 전선의 위급한 지역에 축차적으로 신속히 전개함으로써 6·25전쟁의 최대

40) *Ibid.*, p. 107.

4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58.

42) *Ibid.*, p. 258.

43) *Ibid.*, p. 259.

39)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 106.

위기였던 지연전 및 낙동강 전선에서 부산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4) '모루와 망치 작전'을 고려한 부대 전개

미 지상군의 한반도 전개는 맥아더의 상륙작전 개념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맥아더의 전략개념은 일단 북한군에 대한 저지선을 확보한 후 인천에 모루(anvil) 역할을 하게 될 상륙부대를 기동시키고 이와 병행하여 망치(hammer) 역할을 하게 될 저지부대가 총반격으로 전환하여 북한군을 남북에서 협공한다는 전제하에 미 지상군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미 극동군사령부는 워싱턴으로부터 지상군 참전을 승인받은 후 맥아더 원수가 한강변에서 최초 구상한 인천상륙작전에 기초를 두고 주일미군을 한반도에 전개했다.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의 남침을 어딘가에서 저지한 후 인천에 상륙하여 적을 일거에 격멸시킨다는 작전개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맥아더의 작전개념을 극동군사령부 작전참모 라이트(John Wright) 장군은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 주일미군의 전개 및 부대 운용의 방침으로 활용했다.

당시 미 극동군의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 및 일본 방위에 대한 개념을 보면 첫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의 1개 연대전투단으로 적의 남침을 저지하되, 저지선은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이북의 선으로 한다. 둘째, 해병대와 제1기병사단을 7월 22일경 인천에 상륙시켜 북한군을 양쪽에서 공격한다(블루하트 작전). 셋째, 제7사단으로 북부 일본의 방위를 강화하고, 제25사단은 그 남쪽 큐슈지역까지 방어한다. 넷째, 제7사단 등에서 병력을 차출하여 출동하는 사단을 증강시킨다. 다섯째, 일본으로 하여금 자위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었다.⁴⁴⁾

1950년 7월 초 전선 상황이 악화되면서 맥아더는 최초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계획했던 블루하트(Blue Heart) 계획이 실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제25사단의 주력단 인천상륙작전에 사용할 예정이던 제1기병사단을 한국에 전개했다. 또한 제7사단도 일본 북부 방위를 위해서 한국전선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결국 주일미군 4개 사단은 미 본토 증원병력이 도착하여 낙동강 방어선에 축차적으로 투입된 후 블루하트 계획의 후속으로 다시 입안된 인천상륙작전인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에 의거 한반도에 전개됐다.

(5) 현지 적응훈련 없는 즉각적인 전선 투입에 따른 막대한 인명 손실

미 지상군보다 늦게 한국 전선에 도착하여 싸웠던 유엔군 부대들은 제8군사령부가 마련한 유엔군수용대(United Nations Reception Center)에서 보통 1주 내지 3주간의 현지적응 훈련을 받았다.⁴⁵⁾ 하지만 전쟁 초기 전선이 매우 긴박하면서 유동적일 때 전개됐던 미 지상군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전선에 투입됐다.

한국 전선에 최초로 파병됐던 스미스특수임무부대는 1950년 7월 1일, 부산에 도착한 후, 곧바로 죽미령 전투에 참가했다. 뒤이어 전개된 미 제24사단 제34연대도 7월 2일, 전개한 후 얼마 안 돼 곧바로 천안 전투에 참가하

4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10권, 1979, p. 496. 한편 유엔참전국 군대가 받은 현지적응훈련은 다음과 같다. 호주대대('50. 9. 27~10. 4, 대구 유엔군수용대), 캐나다대대('50. 12. 30~'51. 2. 7, 밀양훈련장), 벨기에-룩셈부르크대대('51. 1. 31~2. 9, 동래 유엔군수용대), 프랑스 대대('50. 11. 29~12. 13, 대구 유엔군수용대), 네덜란드대대('50. 11. 23~12. 3, 대구 유엔군수용대, 중공군 2차공세로 영전사격만 실시하고 부대훈련 미 실시), 그리스('50. 12. 10~14, 김해 유엔임시수용대), 콜롬비아대대('51. 6. 17~7. 29, 동래 유엔군수용대), 태국대대('50. 11. 7~28, 대구 유엔군수용대), 뉴질랜드포병연대('51. 1. 13~18, 밀양훈련장), 필리핀대대('50. 9. 20~9. 28, 밀양훈련장), 터키여단('50. 10. 20~11. 11, 대구 유엔군수용대).

44) 남정옥, 『6·25전쟁시 駐日美軍의 參戰決定과 韓半島 展開』, p. 119.

여 연대장이 전사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뒤이어 한국에 전개한 미 제24사단의 나머지 연대를 비롯하여 제25사단과 제1기병사단도 현지 적응 훈련없이 축차 투입됐다. 그러한 탓인지 주일미군 사단의 피해가 많았다.

특히 전쟁 초기에 투입됐던 제24사단의 피해가 가장 컸다. 한국에 전개된지 불과 1달밖에 안 된 1950년 8월 초 제24사단의 병력은 투입 당시 전투력의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즉, 제19연대는 1,910명, 제21연대는 1,670명, 제34연대는 1,402명이었다.⁴⁶⁾ 특히 8월 중순이 되자 제34연대는 부산에 상륙할 때 2,000명의 병력 중 184명만 생존했다.

이에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급기야 제34연대를 해체하면서 제1대대는 제19연대 제3대대, 제2대대는 제21연대 제2대대로 개편시켰다.⁴⁷⁾ 대신 제24사단에는 하와이에 파병된 제5연대를 배속시켰다.

또한 오키나와에서 파병된 제29연대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제29연대는 대전이 함락되고 제24사단이 후퇴하는 등 전선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전개됐다. 제29연대는 최소한 일본에서 6주간의 훈련을 받은 후에 한국으로 파병될 계획이었으나 상황이 악화되자 7월 24일 부산에 상륙했다. 이때 제3대대(모트 중령)는 하동을 공격하라는 임무를 받고 26일 진주를 출발하여 하동고개에 도달했으나 적의 기습공격을 받고 대대장을 비롯하여 부대대장과 정보주임 등 대대 장교들이 부상을 입었고 대대병력의 50%에 해당하는 403명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제3대대의 안내를 자임했던 전(前) 한국군 육군참모총장 채병덕 장군도 이때 적의 공격을 받고 전사했다.⁴⁸⁾

(6) 개전 초기 전투에 부적합한 부대의 전개

전쟁 초기 한국에 투입된 미 지상군 부대들은 미국의 국방비 감축에 따

라 감편 운용됐다. 이들 부대는 낙동강 전선까지 감소 편성된 부대로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미군 사단은 공히 3개 보병연대로 편성됐으나, 각 보병연대는 2개 대대,⁴⁹⁾ 포병대대는 2개 포대, 대공포대대는 1개 포대, 그리고 중전차대대는 1개의 경전차중대로 편성됐다. 이로 인해 미군 사단과 연대들은 통합적인 전투력 발휘가 어려웠다.

또한 미 본토에 있던 부대도 한국에 투입되는 부대를 위해 지원했기 때문에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1950년 8월 초, 미 본토 및 해외에 주둔하고 있던 제2사단과 제3사단, 제5·제29·제187연대전투단이 한국에 투입됐을 때, 나머지 미 육군 부대는 기간요원만 남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병력 부족 및 전투력 발휘가 어려운 감편 문제는 미국 대통령 및 의회의 병력 증원 조치로 점차 해결됐다. 특히 감소 편성되어 운용된 보병사단의 보병연대들은 낙동강 방어전을 거치면서 대부분 해결됐다. 즉, 미 제24사단 제34연대는 해체되면서 각각 같은 사단의 제19연대와 제21연대의 대대로 편입됐고, 나머지 연대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감소편성의 부대를 해체 또는 다른 부대로부터 충원받아 완전편성의 전투부대로 전환해 나갔다.

(7) 최초 군단사령부 없이 부대 전개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은 개전 초기 군단사령부 없이 사단을 직접 지휘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제8군에는 제1군단과 제9군단이 있었으나, 국방비의 대폭 삭감으로 1950년 3월에 해체됐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맥아더는 펜타곤에 2개 군단을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2개 군단이 한국전선에 도착하자 워커 장군은 미군 4개 사단을 2개 군단

46) Blair, *The Forgotten War*, p. 198.

47) *Ibid.*, p. 222.

48) John Toland, *In Mortal Combat*, 육군본부 역, 『死線을 넘어서』, 1994, p. 126.

49) 6·25전쟁 당시 미 보병연대는 3,800명으로 편성됐고, 예하에는 3개 보병대대로, 각 보병대대는 900명으로 편성되고, 예하에는 3개 소총중대(200명 편성) 및 1개 중화기중대(166명)로 편제됐다(Blair, *The Forgotten War*, p. 91).

에 나눠 배속했다. 대구에 설치한 제1군단사령부에는 제1기병사단과 제24사단을, 부산에 도착한 제9군단에는 제2사단과 제25사단을 배속했다.

그런데 군단장 선임을 하는데 있어서 워커 장군은 8월 중순 제1군단장 내정을 받고 먼저 도착한 콜터(John B. Coulter) 소장을 제9군단장에 임명했다.⁵⁰⁾ 워커 장군은 콜터 장군이 총반격작전 시 공세적으로 전선을 돌파해야 될 제1군단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원래 워커 장군은 제24사단장이었던 딘 장군을 제1군단장에 염두에 뒀으나 그는 지금 여기에 없었다.

이에 워커 장군은 제9군단장으로 내정받고 한국에 도착한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밀번(Frank W. Milburn·58세) 소장을 제1군단장에 임명한 대신 콜터 장군을 제9군단장으로 임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 시 유럽 전선에서 공세적 지휘관으로 용맹을 떨친 바 있던 서독 주둔 미 제1사단장 밀번 장군을 한국전선의 군단장으로 발탁한 것은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대장이었다. 이때 밀번 장군은 한국에 군단장으로 오면서 군단 참모장과 참모들을 선발해 왔다. 참모장에는 벤브룬트(Rinaldo Van Brunt) 대령, 정보참모에는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대통령의 아들(John Eisenhower)의 장인인 톰프슨(Percy W. Thompson) 대령이 그들이었다.⁵¹⁾

한편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 기동부대를 지휘할 제10군단을 8월 26일 재창설했다. 초대 군단장에는 극동군사령부 참모장 알몬드(Edward N. Almond) 소장이 임명됐다. 인천상륙작전 시 제10군단은 미 제7보병사단(한국 육군 제17연대 배속)과 제1해병사단(한국 해병연대 배속)을 지휘했다.

맥아더 장군은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 전쟁이 몇 주 내로 종결될 것으로 보고, 이때 군단을 해체할 계획이었다. 이에 맥아더는 제10군단의 작전 통제권을 제8군에 주지 않고 독립된 부대로 남겨둔 채 자신이 직접 지휘했다.⁵²⁾ 하지만 제10군단은 1950년 12월 24일, 흥남 철수가 끝난 후 제8군에

50) Blair, *The Forgotten War*, p. 261.

51) *Ibid.*, pp. 279-280.

배속됐다. 이에 따라 제8군은 예하에 3개 군단 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을 지도해 나갔다.

(8) 개전 초기 전개된 전투경험 부족 및 고령의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 대폭 교체

전쟁 초기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은 부대 편성뿐만 아니라 고급 장교의 고령화와 전투지휘 경험 부족도 문제가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시 육군참모총장 마셜(George C. Marshall) 원수는 “전시 보병연대장의 나이가 45세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⁵³⁾ 이는 적과 교전을 하는 최전선의 최고 전투지휘관인 연대장의 직책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그만큼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전쟁 초기 한국에 도착한 연대장들은 마셜이 적용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교체됐다. 물론 여기에는 고령(高齡) 외에도 전투경험 부족과 작전실패에 따른 해임도 있었다.

연대장으로 첫 한국전선에 도착했던 제34연대장(Jay B. Loveless 대령·49세)은 전투경험 부족으로 한국에 오자마자 사단장에 의해 해임됐고,⁵⁴⁾ 제19연대장(Guy Stanley Meloy·47세) 대령도 전투경험 부족으로 무어(Ned D. Moore·43세) 대령과 교체됐다.⁵⁵⁾ 제25사단 제27연대장도 처음에는 나이 많은 차일드(John W. Childs·51세) 대령이었으나, 사단장에 의해 젊고 유능한 제8군 작전참모 마이켈리스(Mike Michaelis·36세) 중령으로 교체됐다.⁵⁶⁾

52) 남정옥, 『韓美軍史關係史 1871-2002』, pp. 406-407.

53) Blair, *The Forgotten War*, p. 91.

54) *Ibid.*, pp. 91-93.

55) *Ibid.*, p. 165.

56) *Ibid.*, p. 145.

제1기병사단의 제8기병연대장(Raymond D. Palmer · 49세)은 반격작전 시 제10군단과의 연결작전을 수행하지 못해 워커 장군에 의해 해임됐고, 제5기병연대장(Carl J. Rosenberg · 56세)은 나이가 너무 많고 청각상태도 좋지 않아 사단장에 의해 공격형 지휘관인 크롬베즈(Marcel Gustave Crombez · 49세) 대령으로 교체됐다. 제7기병연대장(Cecil W. Nist · 49세) 대령도 반격작전 시 적을 우회하여 신속히 진격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을 듣지 않아 제77포병대대장(William A. Harris 중령)으로 교체됐다.⁵⁷⁾

제7사단 제31연대장 오븐신(Richard P. Ovenshine · 50세) 대령은 공격적인 지휘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군단장 알몬드 장군에 의해 맥클렌(Allan D. MacLean, 43세) 대령으로 교체됐다. 제32연대장은 최초 제24사단의 제34연대를 지휘했던 뷰챔프(Charles Beauchamp) 대령이었다.⁵⁸⁾ 킨(Kean) 작전을 수행하면서 제25사단장은 제24연대장 화이트(Horton White) 대령과 제5연대장 오드웨이(Godwin Ordway) 대령을 작전능력 부족으로 해임했고, 제24연대장에 챔페니(Art Champeny) 대령을, 제5연대장에 예하 제2대대장인 트로크모튼(John L. Throckmorton · 37세) 중령을 임명했다. 트로크모튼 중령은 한국전쟁에서 가장 젊은 연대장이면서 최초로 대대장에서 연대장으로 승진한 케이스였다.⁵⁹⁾

제2사단 제9연대장은 최초 연대장이 2명 보직됐다. 원래 연대장이었던 슬로운(Charles C. Sloane Jr. · 48세) 대령을 카이저 사단장이 다시 소환한 것을 몰랐던 펜타곤에서 힐(John G. Hill) 대령을 제9연대장에 보직하자, 사단장은 공여지책으로 슬로운 대령을 제9연대장으로, 힐 대령을 제9연대전투단장으로 운용했다.⁶⁰⁾ 하지만 슬로운(Charles C. Sloane Jr.) 대령은 중공군 개입 시 작전실패로 해임됐다.⁶¹⁾ 제23연대장도 펜타곤이 지명한

57) *Ibid.*, p. 307.

5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19.

59) Blair, *The Forgotten War*, p. 197.

60) *Ibid.*, p. 203.

61) *Ibid.*, p. 497.

연대장 프리먼(Paul F. Freeman · 43세) 대령과 그때까지 연대장인 메신저(Edwin J. Messinger · 43세) 대령이 존재했다. 이에 사단장은 프리먼을 연대전투단장으로, 메신저를 부연대장에 임명했다.⁶²⁾ 이처럼 전쟁 초기 미군 수뇌부는 고급지휘관인 연대장 보직에서조차 혼선을 빚고 있었다.

최초 한국에 전개된 보병 사단들의 연대장들은 대체로 나이가 많은 고령의 연대장들이었으나 점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 결과 나중에 한국에 전개된 미 제8군 내 4개 사단의 12개 보병연대장들은 모두 젊은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임명됐고, 이에 연대장의 평균연령도 43.3세로 낮아졌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시 육군참모총장 마셜 장군이 연대장의 나이로 설정했던 45세보다 1.7세가 적은 것이었다. 이로써 미군은 비로소 연령면에서 조건에 부합한 연대장으로 충원됐다.

특히 한국전에 참전했던 연대장들은 전투를 치르면서 손실도 있었지만 다수의 인원이 그 능력을 인정받아 장군으로 승진했다. 개전 1년 동안 연대장을 역임했던 51명 가운데 2명(제34연대장 Robert Martain 대령 · 제31연대장 Allan MacLean 대령)이 전사했고, 18명을 제외한 31명이 장군으로 진급했다.⁶³⁾ 연대장들은 점차 웨스트포인트 출신들로 채워졌다. 인천상륙군단인 제10군단 예하 6명의 연대장 중 제17연대장 포웰(Herb (Powell) 대령)을 제외한 5명이 육사출신이었고, 그들 중 4명(뷰챔프 · 구쓰리 · 해리스 · 맥클린)은 1930년 육사동기생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42.5세였다.⁶⁴⁾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연대장의 나이는 점차 젊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한국에 최초 전개되었던 사단장들도 작전실패의 책임을 지고 교체됐다. 최초 한국에 참전했던 미군 사단장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 주로 유럽에서 싸웠던 장군들이었다. 제1기병사단장 게이(Hobart R. Gay) · 제25사단장 킨(William B. Kean) · 제24사단장 처치(John H. Church) · 제7사

62) *Ibid.*, p. 207.

63) Command Report, June 1951. Official biographies: *West Point Register*.

64) Blair, *The Forgotten War*, p. 413.

단장 바르(David G. Barr) 소장은 유럽전선에서 싸웠고, 제2사단장 맥클루어(Robert B. McClure)·제3사단장 소울(Robert H. Soule) 소장은 태평양 전선에서 싸웠다. 이들 사단장들은 대부분 1917~1918년에 임관했다. 그 가운데 킨(Kean) 장군만이 웨스트포인트 출신이었다.⁶⁵⁾ 그러나 이들 사단장들도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교체됐다.

사단장에 대한 대폭적인 교체를 단행한 사람은 워커 장군의 후임으로 제8군사령관이 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이다. 그는 최초 전개된 작전실패 및 고령의 사단장들을 교체했다. 즉, 그는 이들 6명의 사단장들 중 최근에 교체된 2명의 사단장(제2·제3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실시했다. 즉, 제24사단장 처치 장군, 제25사단장 킨 장군, 제1기병사단장 게이 장군, 제7사단장 바르 장군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사단장들은 모두 개전 초기에 참전했던 주일미군 사단장들로 나이가 많은 장군들이었다.⁶⁶⁾

(9) 고급 지휘관 및 참모를 보병전술에 정통한 젊고 유능한 장교로 교체

전쟁 초기 미국의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은 한국전선을 방문하고 나서 “한국에 있는 미군 연대장들은 나이가 너무 많고 거의 전투경험이 없는 장교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에 젊고 경험있는 대령들을 보내 주겠다”고 했다. 그 결과 낙동강 총반격 시 4명의 젊고 유능한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대령들이 한국전선에 배치됐다. 이들은 제8기병연대장으로 보임된 에디슨(Hallett D. Edson) 대령을 비롯하여 맨하트(Ashton H. Manhart)·울노(James K. Woolnough)·벨크(William Belke) 대령이다.⁶⁷⁾

65) *Ibid.*, p. 499.

66) *Ibid.*, p. 581.

67) *Ibid.*, p. 309. footnote 37.

육군부 행정참모부장 리지웨이 중장도 한국에 파견된 미군 고급 참모 및 지휘관들의 능력과 고령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했다. 리지웨이는 1950년 8월 7일 한국전선을 방문하면서 제8군사령부와 예하 일선 부대를 시찰하고 나서 “제8군은 보병전술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고, 전투 제대별로 리더십과 공격정신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리지웨이 장군은 “제8군사령부의 참모들은 이류(二流)의 참모들로 구성됐고, 보병연대장들은 나이가 너무 많으면서 전투 경험과 공격정신이 결여된 장교들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제8군참모장 랜드럼(Gene Landrum·60세) 대령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 약하며, 작전참모 바렛(William Bartlett·51세)과 보좌관들은 보병전술과 동떨어진 포병 출신이라며 교체토록 했다.⁶⁸⁾ 이에 참모장은 앨런(Lev Allen) 소장으로 교체됐고, 작전참모와 보좌관도 보병 장교로 교체됐다.⁶⁹⁾ 또한 그는 제1기병사단의 3개 연대장(Rohsenberg·Nist·Palmer), 제24연대장(Horton White), 제21연대장(Stephens), 제35연대장(Fisher)을 교체했다. 이유는 이들의 나이가 연대장을 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4. 맺 음 말

미 지상군의 한국전 참전은 전쟁 발발 1주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한국전구를 책임지고 있던 맥아더는 먼저 주일미군을 전개시킨 다음 점차 미 본토 및 해외로부터 증원병력을 전개했다. 미 지상군은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주일 미군사단을 선두로 미 본토 및 해외기지의 지상군이 주로 해상을 통해 모두 4단계에 걸쳐 한반도에 전개되어 위기에 빠진

68) *Ibid.*, pp. 185-186.

69) *Ibid.*, p. 223.

한국을 구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전쟁계획이 없는 가운데 세계전략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방력이 삭감된 상태에서 미국은 국방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즉, 국방력 삭감으로 인한 통합전투력 발휘가 어려운 감편(減編)된 부대 구조, 고급지휘관 및 참모의 고령화와 전투경험 부족, 교리상 정립되지 못한 부대 전개 및 연대단위 축차투입, 현지적응훈련 미실시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 지상군의 전개와 관련하여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에서의 전쟁은 뚜렷한 예고 없이 발발했다. 하지만 미국의 신속한 파병결과과 이에 따른 지상군 파견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한국을 구하게 됐다. 여기에는 태평양의 시저로 일컫는 맥아더의 한국전선 시찰과 그의 결론에서 나온 적절한 지상군 파병건의,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의 현명한 보좌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전쟁 초기 맥아더가 판단했던 한국에 파병될 미 지상군 규모는 1개 야전군 및 8개 사단 내지 8.5개 사단이었다.

둘째, 전쟁 초기 미국은 지상군의 파한 규모 및 전개에 대해서는 극동군 사령관인 맥아더에게 위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펜타곤은 맥아더의 뜻을 충실히 따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특히 맥아더의 전개방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어느 일정 선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하는 데 따른 부대 전개이고, 두 번째는 적의 배후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해 적에게 2개의 전선을 강요함과 동시에 적의 퇴로를 차단하여 적의 남북에서 협공하여 격멸하는 데 따른 부대전개이다. 그 과정에서 미 지상군은 처음에는 적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한국전선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부대를 전개했고, 그 이후에는 전선의 안정을 기하면서 상륙작전에 필요한 부대를 전개해 나갔다.

셋째, 미국은 전시 편제병력의 부족 및 전투 손실에 대비하여 트루먼 대

통령과 의회, 그리고 펜타곤의 관계관들이 신속히 움직임으로써 이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의 방지 및 세계전략을 수행해야 했던 미국은 이러한 난제를 훌륭하게 처리해 나갔다. 그 결과 감편부대로 운영되던 부대들은 낙동강 전선 시 대부분 부족한 병력을 증원받아 전투에 임할 수 있게 됐고, 미 본토의 감소편성된 부대들도 육군 인가병력에 대한 증원 조치를 통해 점차 이를 해결하게 됐다.

넷째, 한반도 전개 시 미 지상군은 다른 유엔참전국과는 달리 현지적응훈련을 전혀 받지 않고 곧바로 연대 단위별로 전선에 축차로 투입됐다. 전쟁 초기 한국의 전선 상황은 그만큼 긴박하게 전개됐던 것이다. 그 결과 최초로 전개됐던 주일미군부대(제24사단·제1기병사단·제25보병사단, 제29연대)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즉, 8월 1일까지 한 달간의 한국전선에 투입된 미군은 총 6,003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시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인 오마하비치(Omaha Beach)의 2,000명과 비교할 때 3배이고, 일본의 진주만 기습 시 3,600명의 사상자와 비교할 때 2배에 해당하는 수치였다.⁷⁰⁾ 또한 9월 15일까지 제8군의 사상자는 18,165명으로 이중 4,599명이 전사 또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고, 12,377명이 부상을 입었고, 1,199명이 실종됐다. 이는 “도살장에서 소를 도살하는 것과 같은 야만적인 희생”으로 미군 전사는 기록하고 있다.⁷¹⁾

다섯째, 최초 한반도에 전개되었던 미 지상군은 전투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됐다. 제8군은 군단사령부가 없는 가운데 주일미군사단·본토 증원부대·유엔군 참전부대·한국군을 지휘했다. 부대편성도 보병연대·포병대대가 3각 편제가 아닌 2각 편제에 의한 감소편성으로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통합전투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 미군 사단이 정상적인 3각 편제를 갖추고 전투를 하게 된 것은 1950년 8월, 낙동강 방어선이

70) Blair, *The Forgotten War*, p. 172.

71) *Ibid.*, p. 262.

끝날 무렵이다. 이때부터 미군은 정상 편제에 의한 통합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여섯째, 미 지상군은 전투수행과정에서 전투력이 약화된 부대나 무능력한 장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사 조치를 단행해 전투의 효율성을 기했다. 그 결과 미 지상군은 작전에서 실수를 반복하는 지휘관이 나오지 않았다. 중공군 개입 시 군우리에서 작전에 실패했던 미 제2사단도 부대 해체를 결정할 정도로 작전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실제로 미 제8군은 작전에 실패하여 전투능력을 상실한 미 제24사단 제34연대와 제29연대를 과감히 해체했다.

일곱째, 미군 수뇌부는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참모들을 보병전술을 이해하고 젊고 유능한 웨스트포인트 출신들로 교체해 나갔다. 미군 수뇌부는 제2차 세계대전 시 육군참모총장 마셜 장군이 제시했던 보병연대장의 나이가 45세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전투경험이 있고 보병전술을 이해하는 젊고 유능한 웨스트포인트 출신들을 발탁하여 기용했다. 이에 많은 연대장들이 고령·작전실패·무능력자로 판명돼 해임됐다. 실제로 이들과 교체되어온 후임 연대장들은 한국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그 전공으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장군으로 진급했으며 그 중에는 미 육군의 최고 계급(마이켈리스·프리만 장군 등)까지 진출했다. 여기에는 콜린스 육군참모총장과 리지웨이 장군이 이러한 문제점을 전쟁 초기에 발견하여 조치했기 때문에 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미군 수뇌부의 조치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6·25전쟁은 미 지상군의 신속한 파병결정과 맥아더가 판단했던 9개 사단이라는 대규모 파견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 미국은 막대한 지원과 희생 속에서 한국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한국전, 특히 개전 초기 불비한 상태에서 전개된 미 지상군 부대가 흘린 미군의 값진 피는 한국의 공산화를 막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수호 및 자유진영의 결속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군의 한반도 전개는 개전 초기부터

한미연합전선 형성의 기틀을 마련했고, 전쟁을 통해 한국군을 현대화된 군으로 발전시켰으며, 전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등 한미동맹의 초석이 됐다.

(원고투고일 : 2009. 5. 29, 심사수정일 : 2009. 7. 7, 게재확정일 : 2009. 8. 12)

주제어 : 6·25전쟁, 미 지상군, 한국군, 맥아더 장군, 전개, 주일미군, 미국 증원부대, 미 본토 및 해외기지, 상륙작전, 한미연합군

<ABSTRACT>

Deployment Directions and Its Characteristics of the US Ground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Nam, Jeong-ok

This article reviews how U.S. Ground Forces were deployed i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Korean War(June 25, 1950~July 27, 1953) from United States sources of relevant materials. For such a review, this paper looks at how several situations, depending on the timing of operations carried out and nature of the operations, were carried out: how the Air Force and the Navy started operations prior to engagement of the Army: how the forces stationed in Japan were engaged in operations to check the invading enemy and secure a bridgehead: how the forces stationed in U.S. mainland or overseas were engaged in counterattack operations, including amphibious operations, and how the national guard was deployed following the cease fire in July 1953.

In addition, this paper also looks at how the U.S. augmentation troops were dispatched to Korea in response to General Douglas MacArthur's request, how the forces were put into the battlefields one unit after another in the struggle for time, how the forces were put onto the frontline without lead time for local adaptation, how the forces were deployed in connection with General Douglas MacArthur's anvil-and-hammer attack against the enemy, and what problems high-ranking officers showed in their readiness to engage in combat in the initial stage of the war.

The United States decided to enter in the war on June 30, 1950, i.e., just

six days after the North Korean's attack. Under the command of Douglas MacArthur, the forces stationed in Japan were dispatched to Korea first, followed by augmentation troops dispatched from the U.S. mainland and overseas bases from the end of July that year either by air or by sea. During the three-year war, the United States dispatched a field Army, three corps, eight combat divisions, three regiment combat teams, twenty-eight regiments, eighty infantry battalions, fifty-four artillery battalions and eight armored battalions.

As reviewed above, the U.S. forces suffered huge losses during the Korean War. At the time when Seoul was occupied by the enemy and the ROK Army lost almost half of its troops, with no heavy weapons, the U.S. came to the aid of the ROK, showing it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is country. After all, the prompt deployment of the U.S. ground forces in the initial stage of the war laid the basis for formation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during the war and modernization of the ROK forces after cease fire.

Key Words: the Korean War, U.S. ground forces, the ROK Army, General Douglas MacArthur, deployment, the forces stationed in Japan, the U.S. augmentation troops, the U.S. mainland and overseas bases, amphibious operations, the ROK-US combined forces